

이홍재의 세상만사



우리나라 언론 사상 최장수 칼럼 연재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작고했지만, 생전에 그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칼럼을 써 23년 동안 무려 6702회를 기록했다. 한때 월급의 3분의 1을 책값으로 지출했다는 그는 2만여 권의 책을 보유한 장서가이기도 했다.

그런 그도 글쓰기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마침시간(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아직 주제를 정하지 못한 날에는 정말 죽고 싶다”고까지 했다. 칼럼을 계속 쓰는 일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아는, 참으로 피를 말리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칼럼에 대한 사람들의 호불호(好不好)는 극도로 엇갈리지만, 그가 조수(비서)를 고용해 자료 정리를 시킨다는 소식을 언젠가 풍문으로 들은 적이 있다. 간접적으로 들은 바이니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참 부러웠다. 비서가 챙겨 주는 모든 자료를 받아 적당히 짜깁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하겠는가.

문득 그런 옛 기억이 떠오른 것은, 요즘 어떤 화

가라는 사람이 조수를 시켜 그림을 그렸다가 들통이 나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 주장해 더욱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화가가 조수를 시켜서 작업을 하면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의 창작물인 것일까?

물론 최고의 유명 화가들 중에도 조수를 기용하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 3대 천재 예술가로 불리는 라파엘로가 그랬다. 그는 주로 그림의 아이디어를 내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조수들에게 제작을 전적으로 위임했다.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

더러 단독으로 제작한 것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조수가 만든 작품에 약간의 손질을 거쳐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명성은 하루가 다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 한창때 그의 아틀리에(atelier : 화실)는 50여 명의 조수와 제작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라파엘로는 무뚝뚝한 미켈란젤로나 사회성이 떨어졌던 다빈치와 달리 성품이 씩씩한데다 외모도 잘생긴 ‘꽃미남’이어서, 교황 율리우스 2세 등 권력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덕분에 그는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호의를 거스를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유

어느 환쟁이의 날개 없는 추락

능한 조수를 고용, 공동 작업이라는 묘책을 짜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그런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이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 및 작업대에 누운 채, ‘천지창조’의 완성을 위해 4년 동안 고통스럽게 붓질만 하던 미켈란젤로도 그랬다. 그때 라파엘로 역시 시스티나 성당의 다른 방에서 프레스코화(fresco 畵: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성당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던 일화가 전해진다. 뒤에 조수들을 거느리고 걸어간 라파엘로가 홀로 가던 미켈란젤로에게 말을 건넨다. “선생님은 늘 외로워 보이시군요.” 그러자 얼굴을 잔뜩 찡푸린 미켈란젤로가 말한다. “자네는 항상 조수들을 데리고 다니는군. 마치 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홀로 천장 그림을 그리느라 목과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고생하면서도 특유의 장인정신을 발휘했던 미켈란젤로는, 젊은 라파엘로의 공동 작업이 여간 못마땅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얼마 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가수 조영남의 화투 그림을 본 적이 있다. 화투를 그림의 소재로 도입한 것은 아마도 그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다. ‘가족’의 황영성, ‘빛’의 우재길, ‘잡자리’의 장영일, ‘물방울’의 김창열, ‘파꽃’의 최향. 이들 화가처럼 ‘화투’ 하면 조영남이 떠오를 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잠깐 해 봤다. 이때

만 해도 그가 대작(大作) 시비에 휘말리기 훨씬 전이었으나, 노래에 그림 재능까지 가진 그가 부럽기만 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웬만한 작가들은 다 조수를 쓴다”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작가들이 특히 설치미술을 하는 이들이 조수를 쓰는 것은 단순 반복 작업의 경우, 그것도 조수 옆에서 일일이 지시를 하며 일을 시키는 것이지, 멀리서 납품받아 살짝 덧칠하고 사인만 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빛나간 상술 오염된 예술

미술계에서는 조수를 말할 때 흔히 ‘어시스턴트’(assistant)를 줄여 ‘어시’라고 한다. 만화나 애니메이션(animation) 제작에 ‘어시’가 참여한다는 건 비교적 널리 알려졌다. 만화가가 밑그림을 그려 주면 색을 칠하고 명암을 입히는 것이다. 하지만 회화에서 조수에 의존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아주 생소한 일이다.

외국에선 ‘자신이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유명 작가가 있다고 한다. 예술의 순수성과 독창성을 일부러 조롱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미술 작가 중에는 그런 깊은 뜻도 없이, 조수가 작업한 작품을 수정 보완한 뒤 자신의 작품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묻히고 마

는 것은 조수나 제자들이 절대 약자인 ‘을(乙)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영남 씨는 어쩌다 운이 안 좋았던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그의 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죄는 작품을 대신 그리게 했다는 사실보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이 그리듯 작품을 팔아먹은 데 있다. 혹시 그는 “난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변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으므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다.

말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 일찍이 정조 임금에 갈파하지 않았던가. “말하지 말아야 할 때에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말해야 할 때에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라고. <홍재전서>

흔히 연예인을 낮잡아 탄파라로 부르듯이, 화가를 낮잡아서는 환쟁이라고 한다. 화가를 높여 이르는 말은 화백(畫伯)이다. 조영남 씨는 감히 화백을 꿈꾸지는 못한 대신 자신을 화가(畫家)와 가수(歌手)에서 한 자씩 따서 ‘화수’(畫手)라 지칭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환쟁이와 탄파라를 합쳐 ‘환파라’라 부른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돈에 눈이 팔린 나머지,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오로지 열정 하나만으로 작품을 만드는 이 땅의 많은 예술가들을 모독한 죄, 참으로 크다. <주필>

광주시, 태양광 사업 승소

법원 “공공사업 도덕성 중요...우선협상 지위배제 적합”

녹색친환경에너지 항소 예정...市, 2순위 업체 선정 주목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운정동 태양광시설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26일 (주)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그 지위를 배제한 처분 과정과 근거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도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 투자공모지침 규정을 토대로 ‘컨소시엄’과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시는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행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투자공모지침에 따라 2순위 업체인 (주)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신속한 협상을 진행해 올해 내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제기된 논란으로 인해 국가 중요 정책사업이 미루어져 왔으나, 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 측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정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정해진 평가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16일 녹색친환경에너지 컨소시엄을 1순위, (주)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를 차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문제는 1·2순위 결정이 난 지 꼬박 한달 뒤, 정보처리 입력 과정에서 1순위 대표사인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시는 이를 문제 삼아 LG CNS 측의 1순위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업체 측은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2주년

내달 16~20일 의료봉사

동남아시아에서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올해로 개원 2주년을 맞는다.

(사)희망나무와 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2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식을 갖고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주시의원들을 비롯한 광주지역 의료인들과 청소년 봉사단원들이 참석해 의료봉사 및 교육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료활동에는 조대병원과 아이퍼스트 아동병원, 동아병원, 아이안과, 미르치와 의료진이 참여한다.

특히 (사)희망나무 측은 캄보디아 이주여성인 양시영리(24)씨 가족의 고향 방문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의료진과 봉사단원들이 양씨 가족의 친정마을인 칸달주 담체리마을을 방문해 1박2일의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현지에서 함께 봉사할 시민들의 참여신청도 다음달 6일까지 받는다. 문의 (사)희망나무 인터넷 홈페이지(www.hopetree.kr).

광주일보가 후원해온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개원 2년만에 4만여명에게 ‘광주 인술’을 제공했고, 현지 어린이 등 4명을 조산대병원과 밝은 광주인과 가 초청해 수술해주시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

헌재 각하 결정 2편

“국회 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

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원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사유 없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재심 대상 결정에 제

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① 원서 접수 : 2016. 5. 30(월) ~ 6. 8(수)
 ② 전형일 : 2016. 6. 10(금)
 ③ 합격자 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STEAK	₩	12,500~
	PASTA	₩	11,900~
	PILAF	₩	7,900~
	PIZZA	₩	11,600~
	SALAD	₩	9,900~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